

## 이사벨 톨리도 컬렉션에 나타난 유기적 기하학

임 은 혁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부교수

### Organic Geometry in Isabel Toledo's Collections

Eun-Hyuk Yim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16. 9. 8 접수; 2016. 10. 28 수정; 2016. 10. 31 채택)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organic geometry in Isabel Toledo's collections in terms of the practicality of American sportswear tradition. This study conducts literary survey combined with case analysis of Toledo's works from her debut collection in 1985 to the recent ones. The organic geometry in Toledo's designs refers to the conversion of two-dimensional garment patterns into three-dimensional garment forms with the body as a medium, which is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in this study. First, 'fluidity' describes Toledo's highly fluid jersey dresses which maintain consistent structures by patchwork draping and suspension technique. Second, 'reductionist structure' illustrates that simple geometric shapes such as circles and squares disappear as soon as worn on the body. Third, 'origami construction' explains folding two-dimensional fabrics into three-dimensional forms, which causes the outlines of the body to appear abstract. Toledo's designs deliver the tradition of American sportswear through the organic geometry of garment construction. Toledo's works are authentic American in the aspects that they are functional and modern; they satisfy the practical needs, prioritize the movements of wearers, pursue multi-functions, and their ornamental elements are accompanied by the construction of garments. Isabel Toledo presents designs drawing on her unwavering aesthetics while continuously developing and experimenting creative ways of garment construction.

*Key Words:* Isabel Toledo(이사벨 톨리도), Organic geometry(유기적 기하학), Fluidity(유동성), Reductionist structure(환원주의적 구조), Origami construction(오리가미 구성)

## I. 서론

이사벨 톨리도(Isabel Toledo)는 일반 대중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패션업계 종사자에게

존경받는 디자이너이다. Kim Hastreiter(as cited in Steele & Mears, 2009)에 의하면 미국 디자이너 톨리도는 제프리 빈(Geoffrey Beene)과 찰스 제임스(Charles James)와 함께 끊임없는 실험을 통

해 혁신적이고 독특한 디자인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디자이너의 디자이너(a designer's designer)'로 불린다고 하였다. 패션 저널리스트 Amy Spindler(1997)는 훌륭한 디자이너만이 주제나 극적 요소 없이 디자인 자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톨리도는 패션 자체를 주제로 삼는 디자이너라고 언급하면서 톨리도의 테크닉에의 몰입과 실험정신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Richard Martin (as cited in *Visionaire*, 1998)은 이사벨 톨리도를 발렌시아가(Cristóbal Balenciaga), 샤넬(Coco Chanel), 비오네(Madeleine Vionnet)와 견주며 톨리도의 창의성과 실용성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톨리도가 패션디자이너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분야라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패션의 지배적인 유행을 거스르는 이사벨 톨리도는 대중에게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디자이너이다. 톨리도가 유행하는 실루엣에 집중하기보다는 의복구성 방식을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기에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패션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독립적인 패션 디자인을 추구하는 톨리도의 브랜드 규모는 작고 판매량은 적으나, 톨리도는 패션업계와 예술계 종사자들에게 인정받는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톨리도의 스타일과 창조 방식은 오트 쿠튀르의 전통과 현대패션의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측면을 아우른다. 톨리도는 오트 쿠튀르의 전통적인 맞춤방식과 기성복의 접근성을 혼합하는 '드미 쿠튀르(demi-couture)'(Steele & Mears, 2009)를 추구해왔다. 톨리도 디자인의 패턴, 실루엣, 소재 사용, 드레이핑 방식은 전통적인 구성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또한 몸을 구속하는 드레스메이킹이나 갑옷과 같은 딱딱한 드레스 디자인을 피하고, 착용자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의복을 중시한다. 톨리도의 혁신적인 의복구성법과 독창적인 컨셉의 핵심은 평면의 소재를 삼차원의 의복으로 해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유기적 기하학(organic geometry)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톨리도는 점이면 편평해지는 서클(circle) 스커트를 고안하였고, 연(鸞) 모양의 종이 패턴을 삼차원의 의복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Steele and Mears(2009)는 전설적인 파리의 메종

에서 드미 쿠튀르를 실천한 디자이너들인 랑방(Lanvin)의 엘버 엘바즈(Alber Elbaz), 발렌시아가의 니콜라스 게스키에르(Nicholas Ghesquiere), 니나 리찌(Nina Ricci)의 올리비에 데이스켄스(Olivier Theyskens)는 모두 이전에 이사벨 톨리도가 세운 디자인의 본보기를 따르고 있다고 평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사벨 톨리도의 독창적인 디자인 미학을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의 작업을 분석하여 디자인의 조형특성과 근저의 디자인 철학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벨 톨리도의 디자인에 표현된 유기적 기하학의 특성을 미국 스포츠웨어의 실용주의적 전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이사벨 톨리도의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를 살펴본 후 미국적 스포츠웨어의 전통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벨 톨리도의 디자인에 표현된 유기적 기하학의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는 이사벨 톨리도가 패션 컬렉션을 시작한 1985년부터 최근까지로,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병행한다. 연구자료로는 컬렉션 자료, *The New York Times* 및 *Vogue* 등에 실린 관련 기사, 패션전문서적, 전시도록 등을 활용한다.

아직 이사벨 톨리도의 디자인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지금 톨리도의 디자인을 축약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톨리도 디자인에서 유기적 기하학적 특성이 드러나는 시기에 집중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찾아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이사벨 톨리도의 디자인 커리어

쿠바 태생으로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주한 이사벨 톨리도는 파슨스(Parsons School of Design)에서 수강하였고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패턴 메이킹(pattern making)과 패턴 드래프팅(pattern drafting)을 전공하였다. 1985년에 발표한 첫 공식적인 컬렉션 1986년

S/S에서 톨리도는 작품을 손수 재단하고 봉제하였다(Steele & Mears, 2009). 이 컬렉션에서 톨리도는 데님과 리넨 소재의 드레스, 세퍼레이트(separates), 그리고 할리퀸(harlequin) 패턴으로 안감을 두른 수트를 선보였다. 이후 톨리도는 1998년까지 뉴욕패션위크에서 정기적으로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첫 컬렉션 직후 이사벨 톨리도는 '뉴욕 최고의 신인 디자이너(New York's best new designer)'로 묘사되었고 *Vogue*지는 톨리도의 디자인을 '최고의 미국 패션(The Best of American fashion)'이라고 칭하면서 '7명의 떠오르는 패션 스타(7 rising stars of fashion)'라고 언급했다(as cited in *Fashion is my muse*, 2009). *The New York Times*의 패션 사진작가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은 톨리도의 디자인을 클레어 맥카델(Claire McCardell)과 발렌시아가의 조합이라고 일컬었다(as cited in Steele & Mears, 2009). 이후 톨리도는 쿠바의 클레어 맥카델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1986년에 이사벨 톨리도는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와 함께 미국 *Vogue*지에서 두 명의 패션계의 새로운 스타로 선정되었다. 마크 제이콥스가 수차례 부침을 겪었으나 LVMH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바 있고 패션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톨리도 브랜드는 여전히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Steele and Mears(2009)는 톨리도가 트렌디한 유럽의 디자이너를 모방하지 않고 성실하게 디자인해왔다고 평하면서, 미국 패션계는 대중을 위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복식과 할리우드 황금기의 글래머러스한 의상까지 폭넓은 창조성을 포괄하고 있으나, 이사벨 톨리도와 같은 뛰어난 재능을 갖춘 디자이너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저명한 패션 평론가 Anne-Marie Schiro(1991)는 톨리도를 당시 30대 이하의 미국 디자이너 세대 중 가장 독창적인 디자이너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톨리도의 디자인은 디자인 스쿨에서 배운 패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평했다. 지배적인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톨리도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실용성과 우아한 여성성의 조합을 그 특징으로 하며, 종종 '급진적인 고전주의자(radical classicist)'(Steele & Mears, 2009)라고 묘사되곤 한다.

톨리도의 재단과 봉제 방식은 비관습적이고도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건축적인 순수성을 지향하는 복식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톨리도 디자인의 소재 사용과 패턴은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패턴을 따르지 않고 소재의 사용과 제작 테크닉의 적용에 있어서도 정형화된 방식을 거부한다. 톨리도는 패턴메이킹에서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1995년에 *Vogue Patterns*는 톨리도와 계약하여 그녀의 드레스 패턴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 톨리도는 Artistry of Fashion 부문에서 Couture Council Award를 수상하였는데, 이에 대해 Barney's의 Simon Doonan(as cited in Peden, 2008)은 톨리도가 세심한 재단과 드레이핑으로 알라리아(Azzedine Alaïa), 비오네, 클레어 맥카델, 찰스 제임스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을 하였다.

이사벨 톨리도 디자인의 독창성은 평단에서 인정받아 1998년 The Museum at F.I.T.에서 *Toledo/ Toledo: The Marriage of Art and Fashion*이라는 제목으로 첫 단독 전시가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이사벨 톨리도의 남편이자 디자인 작업의 동반자인 일러스트레이터 루벤 톨리도(Ruben Toledo)와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 전시에서 70여벌의 톨리도의 디자인이 회화, 일러스트레이션, 조각, 마네킹 등을 포함한 루벤 톨리도의 작품과 함께 전시되었다. 톨리도의 디자인은 다음의 7개의 범주로 나뉘어 전시되었다. 극도로 단순한 형태의 기하학적 구조 패턴을 통해 자연적(유기적)인 요소와 형식적(기하학)인 요소를 혼합한 '유기적인 기하학(Organic Geometry)', 저지나 태피터 패턴을 코드나 밴드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장력에 의해 생기는 드레이프를 중심으로 한 '서스펜션(Suspension)', 저지 소재의 조작만으로 드레스에서 흐르는 듯한 건축적인 미를 표현하는 '유동적인 건축(Liquid Architecture)', 레이스와 속옷을 주제로 투명과 불투명의 상호작용을 실험하는 '그림자(Shadows)', 이차원을 원단을 종이접기 방식을 활용하여 접음으로써 삼차원의 형태로 형상화시키는 '오리가미(Origami)', 실용성과 낙관주의를 표현하는 미국적인 소재인 데님을 중심으로 실루엣에 집중한 '형태(Shapes)', 그리고 의복 구조와 구성기술에 집중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식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가공된 표면(Manipulated Surfaces)'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 Michelle Obama's inaguration dress

(출처: [http://www.today.com/id/28770061/ns/today-today\\_news/t/meet-michelle-obamas-maverick-designers/#.V3bVPu0r8cA](http://www.today.com/id/28770061/ns/today-today_news/t/meet-michelle-obamas-maverick-designers/#.V3bVPu0r8cA))



〈그림 2〉 Michelle Obama's inaguration dress and Isabel Toledo

(출처: <http://dalase.com/michelle-obama-s-inaguration-dress/>)

같은 해 이사벨 톨리도의 디자인은 런던의 Hayward Gallery에서 *Addressing the Century* 전시회에 포함되었다. 이어 1999년에는 비엔나에서 1990년대의 진보적인 패션 디자인을 전시한 *Fast Forward: Made in den Medien der 90er Jahre*에 전시되었다. 2000년에는 Kent State University Museum의 큐레이터 비소넷(Anne Bissonette)이 *Toledo/Toledo* 전시를 기획하였다.

이사벨 톨리도의 디자인은 이어 꾸준히 전 세계의 미술관에서 전시되어왔다. 뉴욕의 Cooper-Hewitt Design Triennale, 메트로폴리탄 의상 박물관의 *Goddess*, Pratt Institute의 *Cut and Construction*, 런던 Fashion and Textile Museum의 *My Favorite Dress*, L.A. 현대 미술관(Museum of Contemporary Art)과 도쿄 국립신미술관(The National Art Center, Tokyo)의 *Skin+Bones*, 그리고 The Museum at F.I.T.의 *Form Follows Fashion* 등에서 전시되었다. 이후 2005년에 톨리도 스튜디오(Todelo Studio)는 Cooper-Hewitt National Design Award의 패션부분에서 수상하였고, Fashion Group International은 이사벨과 루벤 톨리도에게 Fashion Visionary Award를 수여하였다.

톨리도는 1998년에 자신의 유일한 마케팅 수단이었던 런웨이 쇼를 중단하였다. 이후 톨리도는 2005년에 Jones Apparel Group의 브랜드 Anne Klein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지명되어 2007년까지 Anne Klein 컬렉션 라인을 디자인하기도 했

다. 톨리도는 여성복에 남성복의 디테일링을 적용하여 단정하면서도 극적인 실루엣을 강조하였는데, 독창적이며 웨어러블(wearable)하다는 호평을 받았다(Horyn, 2007a, 2007b).

톨리도가 자신의 컬렉션을 중단한 후 홍보효과는 감소하였지만, 톨리도의 디자인은 뉴욕의 Barney's, 시카고의 Ikram, 시애틀의 Nordstrom, 파리의 Colette, 제네바의 Septième Etage, 홍콩의 Joyce 등 소수의 고급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Toledo Studio는 20여명의 스태프의 작은 규모로 운영되며, 연간 300여벌의 의류제품을 제작한다(Steele & Mears, 2009). 톨리도는 신중하게 구상되고 제작된 의류는 현재 패션계의 럭셔리 제품의 매스 마케팅과 단명하는 트렌드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teele & Mears, 2009). 대부분의 디자이너가 시즌 컬렉션이라는 패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작업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이사벨 톨리도의 디자인은 트렌드를 따르거나 유행하는 주제에 편승하는 방법으로 컬렉션을 디자인하지 않으며 시즌 별 컨셉에 연연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인식되는 디자이너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디자이너들이 니치마켓(niche market)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존경받는다. 예를 들어 파리를 근거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아제딘 알라이아는 종종 이사벨 톨리도와 비교되는데, 둘 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창적인



〈그림 3〉 Claire McCardell, 1952

(출처: Yohannan, K. (2008), p.70)



〈그림 4〉 Isabel Toledo, Packing Dress, S/S 1998

(출처: Mears, P. (2009), p.67)



디자인을 선보인다. 트렌드를 민감하게 따르지 않는 톨리도는 상대적으로 패션 언론의 주목을 덜 받는다. 또한 톨리도는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재정을 광고비에 할애하지 못하여 패션잡지에 보도나 화보로 실리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재정적인 영향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시즌마다 변화하는 트렌드에 초연하게 발휘되는 톨리도의 재능으로 후원자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2009년 1월,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대통령 취임식에 이사벨 톨리도가 디자인한 레몬그래스색 시스(sheath) 드레스와 코트를 입으면서, 톨리도는 갑자기 뉴스에 등장하였다(그림 1, 2). WWD(2009)의 기사에 따르면 이전 대통령 선거운동에서도 톨리도의 디자인을 착용한 바 있는 미셸 오바마는 톨리도에게 특별히 디자인을 의뢰하였다고 한다.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식에 입었던 앙상블의 색상인 레몬그래스 색은 과거의 영부인들이 전형적으로 선호했던 로얄 블루와 레드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색상으로 노란색은 낙관주의를 상징한다.

## 2. 미국적 스포츠웨어 전통과 톨리도 디자인의 조형성과의 관계

1940년대에 뉴욕에서 시작된 스포츠웨어(sportswear)는 유럽의 전통으로부터 지적이고 감성적

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미국 패션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패션업계에서 스포츠웨어는 상호교차 조합이 가능한 의복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완성된 룩으로 연출하기 용이한 패션 디자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클레어 맥카텔, 바니 캐신(Bonnie Cashin), 할스틴(Halston), 클레어파터(Clarepotter), 베라 맥스웰(Vera Maxwell), 앤 포거티(Anne Fogarty), 루디 건라이히(Rudi Gernreich) 등의 디자이너들은 실용적이고 공리주의적인 미국 스타일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액티브웨어를 캐주얼웨어에 적용하였으며, 스커트의 대안으로 팬츠를 제안하고, 복식의 다기능과 이성주의를 존중하면서 현대적인 드레스코드를 정립하였다(Martin, 1998). 이들은 대중을 위한 실용적이고 적응력이 높으면서도 자기표현이 가능한 복식을 추구하는 20세기 후반 미국 패션의 선구자격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스포츠웨어의 독특한 특성은 문제해결의 독창성과 현실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웨어는 소로비언(Thoreauvian)적 미국적 실용주의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능을 최우선시하는 현대 건축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스포츠웨어 디자이너들은 관리의 용이성과 단순하고 실용적인 여미를 선호하였고, 제정시대 여성의 승마복이나 티벳의 남성복 바지 등 실용적인 사례에서 특징적인 단서를 찾았으며, 스포츠 기능주의를 추구하였다. Martin(1998)에

따르면 파리 중심의 패션이 권위주의적이고 착용자에게 강요성을 띠는데 비해, 미국의 패션은 논리적이고 착용자의 의지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적이었다.

톨리도는 종종 미국의 기능적인 스포츠웨어의 선구자격인 클레어 맥카텔(Claire McCardell, 1905-1958)에 비교된다. Valerie Steele은 톨리도가 맥카텔을 선두로 하는 미국 패션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언급한 바 있다(as cited in Trebay, 2007). 클레어 맥카텔, 베라 맥스웰, 바니 캐션 등은 파리 쿠티르의 디자인 철학을 거부하고 중산층을 위한 편안한 데이웨어의 개념을 포용하여 모던 드레싱(modern dressing)을 개척하였다. 톨리도의 패틴과 봉제에서의 기술적 실험은 미국적 스포츠웨어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톨리도의 *Packing Dress*(그림 3)는 클레어 맥카텔의 저지 앙상블(그림 4)과 실용성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나타낸다. 두 드레스 모두 구김이 잘 가지 않으며 펼치거나 접는 것이 용이하여 의복을 접어 그 부피를 줄이고자하는 실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므로 여행 시 유용하다. 더욱이 톨리도의 *Packing Dress*는 한 가지 형태가 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동적인 형을 띠게 구성되어 하나의 드레스가 다양한 형태로 연출되며 다기능성을 추구한다.

*The New York Times*의 패션저널리스트 Trebay (2007)는 톨리도를 실용주의와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디자이너라 칭했다. *Vogue*의 에디터 Sally Singer(as cited in Dychiao, 2009)는 톨리도가 미국적인 유머와 실용주의 정신을 가지고 개념적인 디자인을 한다고 평하면서, 톨리도 디자인의 중심에는 기능하는 의복이라는 측면에서 스포츠웨어의 개념이 있다고 하였다. 톨리도의 작업 방식은 그 정교함에 있어 오프 쿠티르와 가깝지만, 그녀의 디자인은 기능적이고 모던하다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미국적이다. 톨리도의 디자인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제한하거나 거주장스럽게 하지 않는 착용이 편리한 의복이라 할 수 있다.

톨리도의 디자인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조각가 호레이시오 그리노우(Horatio Greenough)가 만들어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설리번(Louis Sullivan)이 유명하게 만든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신조를 따른다(Steele &

Mears, 2009). 톨리도의 디자인에서는 형태와 기능이 명확히 드러난다. 톨리도는 컬렉션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컨셉이나 테마를 선택하기보다는 의복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기능주의를 추구하지만 톨리도는 미래주의적인 디자인들과는 달리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소위 스마트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톨리도는 술기의 수를 최소화하거나 관습적인 구성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Steele & Mears, 2009). 또한 톨리도는 디자인의 필수적인 요소는 기능이라 믿지만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아돌프 루스(Adolf Loos)처럼 건축적 장식을 죄악시하지는 않는다. 초기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기능적 요건으로만 형태를 이루었다. 그러나 톨리도의 디자인에서 장식은 미적인 디테일보다는 구성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장식은 드레스메이킹 테크닉에 의해 구성의 과정에서 비롯된다. 즉, 톨리도 디자인의 미국 스포츠웨어의 전통은 톨리도만의 독특한 의복 구성방식에 의해 표현된다.

톨리도는 전통적인 구성방식을 따르지 않으며 몸을 구속하는 디자인을 피하고 착용자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의복을 중시한다. 더불어 관리가 용이하고 착용 시 몸을 구속하지 않는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나아가 톨리도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인 셸비지(飾緒, selvedge)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작하여 재단을 통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

톨리도는 유행하는 실루엣에 도전하고 의복 구성의 방식을 혁신하고자 한다. 또한 소재와 테크닉의 정형화된 사용을 거부하고 창의적인 구성방식을 탐구해왔다(임은혜, 2014). 의복제작의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톨리도는 때로는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에 비교되기도 하는데, 이사벨은 이러한 비교를 거부한다. 톨리도는 카와쿠보의 디자인은 아방가르드하지만 자신의 디자인의 미국적 전통은 실용적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as cited in Clarke, 1997).

### III. 톨리도 디자인에 표현된 유기적 기하학

‘유기적 기하학(Organic geometry)’ (Steele & Mears, 2009)은 유기적 요소와 기하학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톨리도의 디자인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톨리도는 단순한 형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조합한다. 유기적 기하학을 추구하는 톨리도의 디자인에서 이차원적인 형태의 의복은 몸에 착용되면서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즉, 의복을 바닥에 펼쳐놓은 모양과 착용된 상태의 모양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며, 기하학적 구조의 패턴이 부드럽고 유기적인 드레스로 변형된다는 측면에서 유기적 기하학을 추구하는 것이다.

유기적 기하학은 톨리도 디자인의 중추적인 요소로, 톨리도의 드레스가 인체에 착용되면 중력에 의해 늘어지면서 그 기하학적 구조는 사라지고 유기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특징을 지칭한다. 이때 착용자는 기하학적 평면성이 유기적인 입체성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임은혁, 2014). 톨리도는 정면만 중시하지 않고 복식을 삼차원의 독립체로 접근하여, 그녀의 디자인은 앞, 옆, 뒷면을 거치면서 놀랄 만큼 변형되거나 예상치 못한 요소를 드러내기도 한다. 톨리도는 원단이 중력에 반응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의복이 아래로 당겨지는 방식에 대해 실험해왔다.

이와 같이 톨리도 디자인의 유기적인 기하학은 이차원적 의복패턴의 기하학(geometry)적 특성이 인체를 매개로 하여 삼차원적 의복형태의 유기적(organic) 특성으로 변환되는 미학을 의미한다. 톨리도는 기하학적 패턴을 통하여 유기적인 인체의 곡선을 고려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즉, 의복에서 표현되는 인체의 곡선은 패션 디자인 형태의 기준이 된다. 톨리도는 의복패턴의 기하학적 형태와 인체에 걸쳐진 후의 유기적인 형태의 관계에 집중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톨리도의 디자인은 비오네 디자인과의 공통점을 드러낸다.

대부분의 디자이너는 스케치를 하거나 트왈(toile)을 만들지만 톨리도의 창작의 과정은 그와 다르다. 디자인 스케치를 하지 않고 드레스폼에 직접 소재로 드레이핑을 시도하였던 비오네와 같이, 톨리도는 스케치를 하지 않고 이차원의 패턴으로 사고하여 이를 삼차원으로 변형시키는 상상을 하면서 디자인한다고 한다(Vogue, 2008).

많은 경우 톨리도의 디자인은 조각적인 소매, 건축적인 바디스, 또는 풍성한 스커트 등 하나의 이상의 독특한 삼차원적 형태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톨리도 디자인에서 지배적인 미학으로 등장하는 유기적 기하학의 표현특성을 분석한 결과, 패치워크 드레이핑과 서스펜션 테크닉을 이용한 몸을 따라 흐르는 듯한 저지 드레스의 유동성, 기하학적 패턴의 환원주의적 구조, 그리고 몸의 윤곽을 추상화하고 평면화하는 오리가미를 이용한 구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톨리도의 디자인은 하나의 유형으로 엄격하게 범주화할 수 없으며 한 범주에 속했지만 다른 범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디자인도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 1. 유동성

유동성은 특히 유연하게 흐르면서도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톨리도의 저지 드레스를 설명하는 범주로, 실크나 레이온 저지가 주름을 만들면서 착용자의 몸과 거리를 두고 입체적인 곡선을 이루는 드레스의 특징을 일컫는다. Juan Ramos (as cited in Steele & Mears, 2009)는 톨리도의 저지 드레스를 묘사하기 위해 ‘유동적 건축(Liquid architectur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유동적인 건축미는 니트 소재의 유연한 특성뿐 아니라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톨리도의 의복 구성법을 의미한다. 기하학적 패턴을 무정형으로 변형시키는 유기적 기하학은 유연한 소재에 구조를 부여하기 위해, 솔기의 사용을 통해 형태를 이루는 톨리도의 방식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완성된 의복의 외관을 결정하기 위해 톨리도는 의복이 중력에 반응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톨리도는 의복이 특정한 방식으로 늘어지고 몸을 감싸도록 계획함에 있어 공학적 원리를 적용하



〈그림 5〉  
Suspension Dress  
(출처: <http://archive.cooperhewitt.org/design-usa/exhibitions.cooperhewitt.org/Design-USA/designer/31.html>)

여, 하나의 솔기로 구성되어 의복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적 틀을 개발하였다. 또한 톨리도는 소재의 물성을 연구하여 각각의 의복에 적합한 최적의 소재를 선택하는데, 특히 몸을 따라 흐르듯이 늘어지는 유동적인 매트 저지(matte jersey)를 자주 사용한다. 튜브 형태의 전형적인 저지 드레스의 구조가 아니라 톨리도는 다양한 테크닉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구조를 구성한다(그림 5). 톨리도는 두꺼운 웰트심(welt seam)으로 저지를 다루어 착용자의 몸에서 흐르는 듯 떨어지면서도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구조를 유지하게 하였다.

톨리도는 유연한 저지로 드레스를 디자인하면서 1930년대부터 디자이너에게 사랑받아 온 전통적인 여신(goddess) 스타일의 드레스를 뛰어넘게 되었다. 톨리도는 딱딱한 하부구조 없이 저지를 사용해 독립적으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녀는 솔기를 통하여 저지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를 '패치워크 드레이핑(patchwork draping)'(Steele & Mears, 2009)이라 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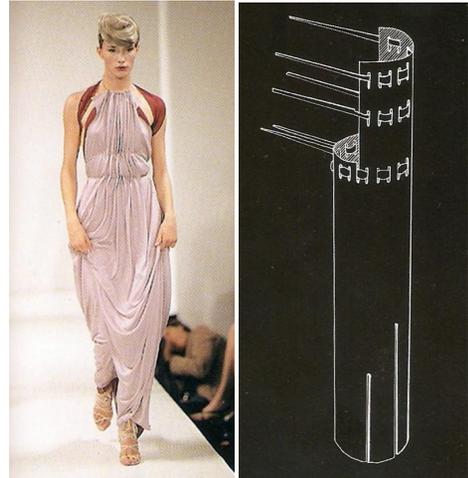


〈그림 6〉 Kangaroo Pouch Dress

(출처: [http://sites.fitnyc.edu/depts/museum/isabel\\_Toledo/kangaroodress.htm](http://sites.fitnyc.edu/depts/museum/isabel_Toledo/kangaroodress.htm))

인 공주의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Infanta Dress*는 힐라인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작은 파니에와 같아 보이게 하였다. 특히 이 드레스에서는 두터운 웰트 솔기를 사용하였다. 한편, *Pedestal Dress*는 검정색 크레이프 저지 소재를 독창적인 솔기 구성으로 제작한 것이다. 스커트는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수직적인 아치형 고어(gore)로 구성되며,

스커트의 바탕은 울 펠트 소재의 세 겹의 밴드로 구성되는데, 먼 크로세 레이스와 실크 망사의 패치워크로 구성되었다(Steele & Mears, 2009). 스커트의 밴드는 점차 커지는 동심원으로 보이나, 의복 패턴을 보면 울 펠트는 아치의 형태를 이루며 패치워크는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 Cylinder Dress

(출처: Hodge, B. et al. (2006). p.225)

유동성을 추구하는 톨리도 디자인의 주요한 테크닉 중 하나는 서스펜션(suspension)이다. 교묘하게 비틀리고 드레이프되고 봉제된 저지 드레스의 구성을 살펴보면 하나의 솔기나 드로우스트링(drawstring)이 도르래의 역할을 하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소재를 매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공학에서 서스펜션은 버팀대에 의해서 매달리거나 매다는 상태를 의미한다. 톨리도는 교량건설과 토목공학에서 사용되는 서스펜션 원리를 의복구성에 적용하여, 밴드에 천을 매달거나 끈을 당겨 부풀리는 방식으로 저지 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현수교(suspension bridge)와는 달리 톨리도의 서스펜션은 부드럽고 동적으로 몸 위를 부유한다. 그녀의 서스펜션은 드레스의 중심적 구조의 균형을 하나의 중심점을 사용하여 이루는 것이다. 서스펜션 테크닉은 톨리도의 1997년 F/W 컬렉션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그 기본적인 구조는 저지 등의 바탕 소재에 만든 여러 개의 구멍을 통해 쉬폰이나 조오젯 등 가벼운

실크로 만든 넓은 밴드를 끌어당긴 후, 저지를 당겨 의복을 형태를 만들고 목이나 어깨 주위를 감는 형식으로 구성된다(Steele & Mears, 2009). *Cylinder Dress*(그림 7)에서는 저지를 어깨 주위에 고정시키기 위해 쉬폰을 사용하였는데 수평으로 저지를 통과시켜 실루엣을 구성하고 홀터(halter) 넥라인을 지탱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Suspender Dress*는 티셔츠 모양의 앞뒤판 토르소 드레스를 새쉬(sash)로 드나들며 엮어 드레스 전체를 한쪽 어깨에 걸치게 하였으며 허리선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하나의 드레스로 여러 허리 사이즈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유동적인 톨리도 디자인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형 가능하다.



〈그림 8〉  
Hermaphrodite Dress  
(출처: [http://sites.fitnyc.edu/depts/museum/isabel\\_Toledo/hermaphroditedress.htm](http://sites.fitnyc.edu/depts/museum/isabel_Toledo/hermaphroditedress.htm))

서스펜션의 구현에 있어 톨리도는 *Hermaphrodite Dress*와 *Wave Dress*에서는 제 원단으로 만든 도르래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특히, 여러 개의 고리모양의 천 조각으로 구성된 *Hermaphrodite Dress*(그림 8)는 몸에 착용되면 통의 모양을 띠지만 어깨와 목 부위의 드로우스트링을 당기면 우아한 주름이 만들어진다. 톨리도의 의복 패턴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차원의 소재가 몸을 둘러싸 삼차원의 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복잡한 주름을 계산한 것이다.

톨리도 디자인의 유동성에 수반되는 형태적 변형가능성은 다기능성의 추구로 연결되어 미국적 스포츠웨어의 전통과 닿아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동적 디자인의 동적인 형은 다양한 형태의 연출이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앞, 옆, 뒷면으로 이어지며 예상치 못한 형태를 드러내는 입체적 측면을 나타낸다. 또한 표면 장식요소를 따로 더하지 않고 독창적인 솔기구성에서 자연스럽게 장식성이 비롯되도록 하는 기능성의 추구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소재의 사용으로 착용자의 움직임

을 제한하거나 몸을 구속하지 않는 실용성도 스포츠웨어와의 깊은 관련성을 드러냈다.

## 2. 환원주의적 구조

톨리도는 패턴 메이킹에 있어 환원주의적(reductive) 접근 방식을 택하는데, 톨리도는 이를 ‘낭만적인 수학(romantic mathematics)’(Browne & Bissonnette, 2000)라 일컫는다. Toledo(2012)는 인체에 부합하는 기하학적 형태들이 자신의 디자인 언어라 언급하기도 하였다. 톨리도는 의복 패턴을 사각형, 원, 삼각형, 원통이나 원뿔 등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며, 재단된 조각들은 몸 위에 걸쳐지면서 편평함을 잃고 흐르는 듯한 유기적인 형태로 변환된다(임은혁, 2014).

일반적으로 의복은 여러 조각의 패턴으로 재단되고 조합되어 몸의 형태에 순응하거나 체형을 보완하도록 제작되므로, 관습적인 의복에서는 기하학적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다(Hodge et al., 2006). 그러나 이사벨 톨리도의 디자인에서는 환원적이고 기하학적 패턴에 대한 탐구가 자주 등장하는데, 일단 몸에 착용되면 몸이 의복의 공간을 채우고 의복이 중력에 의해 늘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게 되므로 그 기하학적 구조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Toledo(2012)는 이에 대해 자신의 작업은 ‘East meets West’의 디자인 접근방식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동양의 평평한 패턴과 서양의 테일러링을 결합시킨다고 하였다.

톨리도는 종종 원형 패턴을 사용하여 드레스를 제작하였는데, 레이온이나 울 저지 등 중량감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 후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게 한다. 특히 톨리도의 *Packing Dress*와 *Cornflower Dress*가 대표적이다. 앞서 언급한 톨리도의 *Packing Dress*(그림 4)는 여행을 위해 의복을 접어 그 부피를 줄이고자하는 실용적인 요구와 원형의 실크 소재를 풍성한 드레스로 변형하는 구조를 결합시킨 것으로, 단 두 개의 원형 패턴을 이용하여 드레스를 구성하였다. 톨리도는 한쪽 원에 머리와 팔을 내놓기 위해 세 개의 구멍을 내고 그 중 하나에 후드를 달았으며, 다른 한 원에 커다란 구멍을 내어 다리를 내놓도록 한 후, 두 개의 원을 구멍들이 겹쳐지지 않게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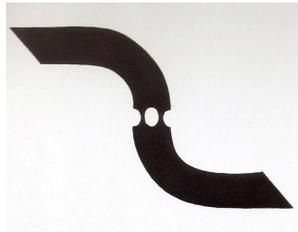
제하였다. 착용 시에 평평한 원은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에서 일종의 지오데식 돔(geodesic dome) 형태로 변형된다. 톨리도는 *Packing Dress*를 통해 한 가지 형태가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형을 띠게 함으로써 같은 드레스가 다양한 형태를 연출하게 하였다. 평평한 상태에서는 원형의 기하학적 형태의 드레스가 착용되었을 때는 누에고치와 같은 유기적인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다. 톨리도는 이러한 구조의 디자인을 매 시즌 다른 소재로 반복한다.



〈그림 9〉 Jellyfish Dress

(출처: Steele, V., & Mears, P. (2009). p.142)

진다. *Jellyfish Blouse*는 하나의 패턴 조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어 서로 다른 네 개의 실루엣을 만들 수 있는 블라우스이다.



〈그림 10〉 Caterpillar Dress

(출처: Hodge, B. et al. (2006). p.224)

톱의 끈 방향으로 여유분이 당겨져 토르소와 엉덩이를 가로질러 주름을 이루어 주름 잡힌 볼륨은 주름이 없는 잎 모양의 조각과 봉제되어 연결되어 있다. 이 드레스에서 대담한 S 자형의 패턴 도식은 전체 디자인에 구조적 틀을 제공하는데, 하나의 나선형의 솔기로 몸을 둘러싸면서 우아한 이브닝드레스로 변형된다. 한편 레이온 저지 소재의 *Tuning Fork Pants*와 실크 크레이프 드

레스(crepe de chine) 소재의 *Croissant Blouse*는 바닥에 평평하게 펼쳐놓으면 우아한 아치모양의 오브제가 된다. 이들은 몸 위에 걸쳐지면 아치의 바깥쪽 가장자리가 가볍게 부풀려지는 모양을 띠면서 조각적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톨리도의 패턴은 복잡한 드레이핑과 접기를 사용하면서도 외관은 매우 단순하다. 환원주의적 구조를 띠는 톨리도 패턴의 특징은 단순하고 평면적인 패턴 조각이 몸을 둘러싸는 삼차원적인 형태로 변형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톨리도는 과다한 장식을 피하고 환원주의적 구조 자체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디자인의 전형적인 형태적 특성을 유지하며, 재단 및 구성선 등의 구조적 요소가 장식의 역할도 하도록 구성하는 스포츠웨어 전통의 실용성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톨리도 패턴의 환원적 특성은 부피를 줄이고자하는 실용적인 요구와도 연결되었으며, 환원주의적 구조를 통해 같은 드레스가 다양한 형태를 연출한다는 측면에서 스포츠웨어의 다기능성을 추구함을 알 수 있었다.

### 3. 오리가미 구성

톨리도는 의복소재를 종이처럼 다루어 몸의 외곽선을 추상화하고 평면화하기도 한다. 톨리도는 복합적인 형태를 창조하기 위한 자유로운 구성방식으로 이차원의 평평한 종이를 접어 삼차원의 형태로 만드는 오리가미를 사용한다. 톨리도는 이러한 오리가미 구성을 통해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패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구조를 통한 형태미 추구한다. 톨리도는 매트 저지나 실크 조오젯(georgette)을 사용하여 오리가미 구성을 구현하기도 하고, 조각적인 오리가미 디자인을 울 트위드, 다마스크(damask), 양면 캐시미어 등의 두터운 소재를 통해 표현하기도 한다.

톨리도는 1980년대부터 오리가미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실험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톨리도의 오리가미 사용의 본보기로 *Envelope Dress*와 *Zigzag Dress*를 들 수 있다(그림 11). *Zigzag Dress*는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인 셀비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제작하였는데, 드레스의 상부는 45도 각도로 뾰족하게 재단하였고 셀비지에 가까울수록 긴 곡선을

이루게 하였다. 이 드레스의 한쪽으로 치우친 삼각형 패턴은 곡선을 따라 스칼롭 모양을 이루는데, 소재를 앞뒤로 접어 각 스칼롭이 뒤쪽의 스칼롭과 맞추어지도록 하였다. Zigzag Dress의 앞쪽으로 겹쳐진 소재가 캐스캐이드(cascade)를 이루며 떨어지는 실루엣은 직선으로부터 물결 모양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 드레스의 파형 곡선은 한 장의 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약간씩 각도를 바꾸며 헴라인까지 여러 번 반복되며 굽이치는 캐스캐이드는 겉으로는 단순해보이나 치밀한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Steele & Mears, 2009).



〈그림 12〉 Tube Jacket

(출처: 좌: [http://sites.fitnyc.edu/depts/museum/isabel\\_Toledo/tubejacketback.htm](http://sites.fitnyc.edu/depts/museum/isabel_Toledo/tubejacketback.htm),  
우: [http://sites.fitnyc.edu/depts/museum/isabel\\_Toledo/tubejacket.htm](http://sites.fitnyc.edu/depts/museum/isabel_Toledo/tubejacket.htm))



〈그림 11〉

Envelope Dress and Zigzag Dress

(출처: Steele, V., & Mears, P. (2009). p.170)

톨리도의 디자인에서는 오리가미 방법으로 구성된 두 개의 활 모양의 이차원적인 패턴이, 착용 시에는 호 모양의 라펠, 삼각형의 커푸스, 피라미드 모양의 스커트, 돛 모양의 뒤판을 이루는 삼차원의 형태 등으로 변형된다. Tube Jacket(그림 12)은 조각적인 디자인의 볼레로(bolero)인데 이는 단순한 기하학적 패턴을 접어 삼차원의 형태로 만든 것으로, 바닥에 펼쳐놓으면 뱀 모양의 기다란 모양을 띤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 미셸 오바마가 착용했던 코트도 톨리도의 Tube Jacket 구성방식에 의해 제작된 것이었다(Steele & Mears, 2009).

오리가미 구성방식은 와타나베(Junya Watanabe), 카와쿠보, 히시누마(Yoshiki Hishinuma) 등 일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에게 종종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들의 오리가미 디자인은 삼차원에서도 기하학적 형태를 유지하는데 반해 톨리도의 오리가미 디자인은 구조를 통한 변경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체의 곡선을 최우선시하는 유기적인 디자인이다. 다시 말해, 톨리도 디자인의 오리가미 구성은 실용성과 적응성이 높으면서도 자기표현을 가능케 하는 스포츠웨어의 특성과 연관된다. 나아가 톨리도의 오리가미 패턴은 접거나 펼치는 것이 용이하여 의복의 부피를 줄이고자하는 실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며, 종종 셀비지까지 사용하여 제작되어 스포츠웨어의 경제성 및 효율성 추구의 특성을 드러낸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사벨 톨리도의 디자인 미학의 유기적 기하학의 특성을 미국 스포츠웨어의 실용주의적 전통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톨리도의 디자인에서는 유기적 요소와 기하학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 이차원적인 형태의 의복패턴이 몸에 착용되면 유기적인 의복으로 변형되면서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이차원적 의복패턴의 기하학(geometry)적 특성이 인체를 매개로 하여 삼차원적 유기적(organic) 형태로 변환되는 톨리도 디자인의 유기적 기하학(organic

geometry)의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첫째, 유연하게 흐르면서도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톨리도의 저지 드레스를 설명하는 유동성으로, 이는 주로 솔기를 이용하여 형태를 유지시키는 패치워크 드레이핑과 하나의 솔기나 드로우스트링이 도르래의 역할을 하면서 의복을 고정시키고 드레이프를 만들어내는 서스펜션 테크닉에 의해 이루어진다. 둘째, 의복패턴을 원이나 사각형 등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는 환원주의적 구조로, 기하학적 패턴이 일단 몸에 착용되면 중력에 의해 늘어지면서 그 기하학적 구조는 사라지게 된다. 셋째, 이차원의 평평한 의복소재를 접어 삼차원의 형태로 만드는 오리가미 구성으로, 오리가미를 사용하여 몸의 외곽선을 추상화한다.

본 연구를 통해 톨리도 디자인의 특징은 기하학적 형태의 단순한 패턴 조각이 몸과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적인 형태로 변형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톨리도는 기하학적 패턴, 환원주의적인 형태, 오리가미 구성 등을 통한 평면적인 패턴이 몸 위에 걸쳐지고 중력에 의해 늘어지면서 유동적인 삼차원 형태로 변모하는 유기적 기하학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톨리도의 디자인은 하나의 범주만으로 국한하기 어렵다. 일부 톨리도의 디자인은 단일 범주를 대변하지만 대부분 여러 범주를 동시에 구현하거나 유동적이다.

더불어 관습적이고 정형화된 서구적 의복패턴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패턴을 추구하는 톨리도 디자인의 근간에서 기능성과 실용성을 최우선시하는 스포츠웨어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소재 사용, 접는 것이 용이한 구조, 단순하고 실용적인 여밈, 착용과 관리의 편리성, 하나의 디자인을 다양한 형태로 연출하는 다기능성, 장식성을 추구하지 않고 장식은 드레스메이킹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게 하는 효율성, 그리고 재단 시 원단의 낭비가 적을 뿐 아니라 셀비지까지 사용하는 경제성 등을 살펴보았을 때, 톨리도 디자인이 미국적 스포츠웨어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곡선, 평면, 축각적 볼륨, 기하학적 형태의 파편 등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는 톨리도의 디자인 필체는 조각적이면서 조형적이다. 이와 같

이 재단, 구성, 색상을 통해 디자인 언어(design language)를 확장하는 톨리도는 Steele and Mears (2009)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의복을 착용하는 착용자가 느끼는 감정에 관한 의복의 감정(emotion of clothes) 또는 복식 감정(dresses' emotion)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톨리도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상업적 성공을 거둔 디자이너라기보다는 패션계의 종사자와 큐레이터에게 인정받아 자신의 디자인 세계가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디자이너로서, 미술관 전시, 강의, 창작활동을 통해 패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사벨 톨리도는 패션의 빠른 유행주기 및 변화에 대해 피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확고한 미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디자인의 형태적 가능성과 구성방식에서의 실험과 개발을 해오고 있다.

## 참고문헌

- 임은혜. (2014). 건축적 패션 디자인의 구조적 전략. *패션비즈니스*, 18(1), 164-181.
- Browne, A., & Bissonnette, A. (2000). *Toledo, Toledo exhibition catalog*. New York: Visionaire Publishing.
- Clarke, M. (1997, 1) Isabel Toledo. *Index Magazine*. 자료검색일 2015. 10. 2, 자료출처 [http://www.index-magazine.com/interviews/isabel\\_toledo.shtml](http://www.index-magazine.com/interviews/isabel_toledo.shtml)
- Dychiao, C. (2009. 8. 2) Isabel Toledo: Fashion from the inside out. 자료검색일 2016. 6. 20, 자료출처 <http://www.philstar.com/radar/491858/isabel-toledo-fashion-inside-out>
- Hodge, B. et al. (eds.) (2006). *Skin + Bones: Parallel practices in fashion and architecture*. London: Thames & Hudson.
- Horyn, C. (2007a, 2. 10). A woman in the house: Isabel Toledo. *The New York Times*. 자료검색일 2015. 10. 25, 자료출처 <http://runway.blogs.nytimes.com/2007/02/10/a-woman-in-the-house-isabel-toledo>
- Horyn, C. (2007b, 2. 12). At the end of the week, they sat up and took notice. *The New York Times*. 자료검색일 2015. 10. 25, 자료출처 [http://www.nytimes.com/2007/02/12/fashion/shows/12FASHION.html?\\_r=0](http://www.nytimes.com/2007/02/12/fashion/shows/12FASHION.html?_r=0)

- Lessons from Isabel Toledo. (2009. 9. 25). Fashion is my muse. 자료검색일 2016. 6. 20, 자료출처 <http://fashionismymuse.blogspot.kr/2009/09/lessons-from-isabel-toledo.html>
- Martin, R. (1998). *American ingenuity*.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Mears, P. (2009). *American beauty: Aesthetics and innovation in fash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ichelle Obama wears Isabel Toledo. (2009, 1. 20). WWD. 자료검색일 2015. 11. 3, 자료출처 <http://wwd.com/fashion-news/fashion-features/michelle-obama-to-wear-isabel-toledo-1932671>
- Peden, L. D. (2008, 9. 4). Toledo's FIT Fete. Vogue. 자료검색일 2015. 10. 20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news/2008/09/04/isabel-toledo-honoured-by-fit>
- Schiro, A. (1991, 4. 13). Zang Toi's shining suits; Isabel Toledo's novel cuts. *The New York Times*. 자료검색일 2015. 11. 4, 자료출처 <http://www.nytimes.com/1991/04/13/news/zang-toi-s-shining-suits-isabel-toledo-s-novel-cuts.html>
- Spindler, A. (1997, 3. 10). The gutsy, the greedy, the humbles. *The New York Times*. 자료검색일 2015. 11. 3, 자료출처 <http://www.nytimes.com/1997/04/08/style/the-gutsy-the-greedy-the-humble.html?pagewanted=all>
- Steele, V., & Mears, P. (2009). *Isabel Toledo: Fashion from the inside ou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oledo, I. (2012). *Roots of style: Wearing together life, love, and fashion*. New York: A Celebra Book.
- Trebay, G. (2007, 2. 9). The pragmatism and poetry of Isabel Toledo. *The New York Times*. 자료검색일 2015. 10. 20, 자료출처 <http://www.nytimes.com/2007/02/09/fashion/shows/09DIARY.html?pagewanted=print>
- Tornado Toledo. (2008, 9. 5). *Vogue*. 자료검색일 2015. 11. 2, 자료출처 <http://www.vogue.co.uk/news/2008/09/05/everyone-loves-isabel-toledo>
- Visionaire (1998). *Toledo/Toledo -Ruben and Isabel Toledo: The marriage of art and fashion*. Kyoto: Kodansha Press.
- Yohannan, K. (2008). *Claire McCardell*. New York: Harry N. Abrams.